

# 거장들 재능기부로 만든 '물방울 청자' 청와대도 사용중인 '소년·소녀 양념통'

일주일 남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놓치면 아까운 작품들

대기업·대학생 작품 전시

'디자인 R&D'전 복적

일본관 '3D 로봇'도 인기



'물방울 청자'



'소년·소녀 양념통'



'기억하다'



일본관 로봇 조형물

지난달 15일 개막한 2015 광주 디자인비엔날레가 어느덧 중반을 넘어 폐막(13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다. 이번 행사는 35개국에서 약 3000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수 많은 작품 중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도슨트 의견, 관람객 반응 등을 종합해 놓치면 아까운 작품들을 소개한다.

1관 '광주브랜딩'전을 들어서면 가장 처음 'DOTS'를 만난다. 얼핏 보면 시계 같지만 실제로 벽이나 천장에 설치하는 조명이다. 원반형 받침에 뚫린 구멍으로 빛이 통과하도록 했다. 주위를 밝히기 보다는 장식적 효과가 돋보인다.

식기세트 '미니맨' 시리즈는 고개를 가까이 대고 자세히 봐야한다. 단순 도자기 식기세트 같지만 각 제품마다 약 2cm 크기의 사람모양 조형물이 붙어있다. 접시 안쪽에 누워있거나 물병 입구로 기어오르거나 친구를 부르는 모습이 앙증맞다.

휴대용 보관용기 'G-보틀'은 두가지 기능이 있다. 분리과 결합이다. 다른 전시작과 달리 이 작품은 관람객들이 만지고 체험할 수 있다. 1차 용기 두개를 결합한 타원형이 기본형이지만 여러개를 이용해 기하학적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다. 숨겨진 기능도 있다. 한손에 잡기 좋은 두개를 통해 아령 대신 운동기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했다.

'광주브랜딩'전을 다 감상했으면 '국제홍보상징관'으로 이동하자. 이가진 작가의 물방울 모양 청자작품이 전시된 곳이다. 공간은 승효상 건축가가 담양 소재 일을 모티브로 디자인했다. 은은한 조명 밑에서 청자를 감상하며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이다. 청자 문양은 김용택 시인, 배병우 사진작가, 알레산드로 멘디니 등 국내외 인사 50명이 재능기부했다. 마음에 드는 작품은 구입할 수도 있다고 하니 거실에 청자작품 하나쯤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2관에 들어서서 왼쪽을 보면 '아시아디자인허브'전 일본관 입구에 위치한 로봇 조형물이 눈에 띈다. 오노 테츠야의 '모든 것을 차별, 무로 돌아가게 하는 자'다. 3D프린터로 제작된 이 작품은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이 연상돼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다. 입구 바닥에는 새 그림자가 보이는데 천장에 매달린 테라다 켄타로의 '버드 키트'의 그림자다. 투명한 실로 매어있어 진짜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

일본관을 나오면 시각 목재로 지어낸 집 모양이 보인다. 한국관이다. 위한립 작가의 '치맛자락 테이블'은 위에서 보면 평범한 탁자다. 하지만 시선을 낮추면 테이블 다리가 바람에 나부끼는 치맛자락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작품명이 한번에 이해된다.

3관 가장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광주문화디자인사'이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엿볼 수 있다. 그중 인형사랑 대표 김숙희 작가의 '소년 소녀 양념통'은 인형이 바닥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있는 귀여운 모양새다. 청와대에서도 사용중이라고 한다. 김현주의 '기억하다'는 금속에 옷철을 입히고 자개를 붙인 유골함이다. 지난 2일 1주기 추모식을 맞은 가수 신해철의 유골함으로 사용돼 유명세를 탄 작품이다.

이외에도 4관 '뉴 이탈리아 디자인 2.0'전에서는 3륜 오토바이인 'MP3'(라프리 마르코 작), 휴대용 축구골대인 '레이지 풋볼'(마지니 임마누엘) 등을 볼 수 있다. 또 삼성·KIA 등 대기업을 비롯해 중국 청와대·전남대·조선대 학생들의 디자인 작품들이 출품된 5관 '디자인 R&D'전도 빼놓지 말고 봐야한다.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작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도슨트 투어를 이용하면 된다. 매 정각마다 시작하며 약 1시간 일정이자. 도슨트 투어가 끝난 후 입장권에 도장을 받으면 재입장이 가능하니 여유롭게 작품을 다시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62-611-514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아시아디자인허브'전을 관람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디자인비엔날레추진단 제공>

## 이자람, 스승 송순섭 명창과 '홍보가' 완창

8일 국립국악원 우면당 합동무대

젊은 소리꾼 이자람(36·사진 오른쪽)씨는 전통 판소리 뿐 아니라 창작 판소리로 주가가 높다. 브레히트의 작품을 소재로 한 '사천가', '역적가' 등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연돼 화제를 모았다.

이씨는 지난 2일부터 순천에 머물고 있다. 오는 8일 국립국악원에서 열리는 '홍보가' 완창 무대를 앞두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그녀가 순천까지 내려온 이유는 스승을 찾아서다. 서울대 재학 시절 그녀를 가르쳤던 송순섭(79·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명창이다.

이씨는 스승과 함께 오는 8일(오후 3시) 국립국악원 우면당 '소리꾼 이자람 인간문화재 송순섭 합동 완창 동편제 판소리 홍보가' 공연을 갖는다. 3시간 30분간 이어지는 이번 공연은 사제간이 함께 만들어간다.

동편제 '홍보가'는 송흥록-송만갑-박봉술 명창을 거쳐 '적벽가' 보유자인 송순섭 명창으로 이어진 소리로 이씨는 오랫동안 송명창에게 '홍보가'를 사사했다.



어떤 이들에겐 '예술이'로 기억되는 이씨는 전통 판소리를 배운 지 27년이 넘었다. '심청가', '춘향가', '수궁가', '적벽가' 완창 무대를 가진 적이 있다. 송명창은 2011년 '홍보가'를 완창했고 올해는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 개막작 '적벽가' 도장을 맡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송명창은 "제자가 용기를 내 나에게 배운 홍보가를 한 무대에 올리자고 제안했을 때 무척 기쁘고 대견했다"며 "제자와 함께 공연하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다. 문의 02-2677-511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허백련, 한국화 6대가 중 낙찰작품수 2위

지난 15년간... 낙찰가격은 12억2000만원으로 3위

의재 허백련이 지난 15년간 미술품 경매에서 한국화 6대가(김은호·노수현·박승무·변관식·이상범·허백련) 중 낙찰작품수는 두번째, 낙찰총액은 세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미술사가감정협회와 미술경제전문지 '아트프라이스'가 한국화 6대가의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5년간 경매 낙찰가격을 분석했다. 분석 자료는 2000년부터 2015년 9월까지의 8개 경매사(서울옥션·K옥션, 아이옥션·옥션·마이아트옥션·아트데이옥션·꼬모옥션·에이옥션)의 낙찰결과이다.

낙찰총액은 이상범(7억6000만원), 변관식(31억6000만원), 허백련(12억2000만원), 김은호(11억2000만원), 노수현(6억2000만원), 박승무(4억3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낙찰된 작품수는 이상범(677점), 허백련(517), 변관식(376), 김은호(330), 박승무(266), 노수현(136)



지난 3월 서울 옥션에서 440만원에 낙찰된 허백련 작 '송하은일'.

순이다. 낙찰률은 박승무 69.3%와 김은호 67.1% 등을 포함해 대개 60% 중반 전후였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 11월 행사

9일 문예회관 소극장

'천원으로 즐기는 행복'

제67회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 11월 행사가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퓨전국악 실내악단 '해화'를 초청, '축제'라는 주제로 열린다.

'해화'는 이번 공연에서 클래식 음악, 영화음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우리의 따뜻한 민속성을 담아낸 '아침을 두드리는 소리'를 시작으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송선명씨가 협연자로 참여하는 대금 협주곡 '다향', '사랑가', '도라지 산명' 등을 만날 수 있다. www.gjasia.org. 문의 062-226-20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악독한 노예상인에서 회심하여  
불멸의 찬송 'Amazing Grace'를 만든 성직자가 되기까지  
인간구원의 감동드라마를 그린 영화 <프리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희망

# 프리덤

FREEDOM

이카메시상식 남우조연상 <셀마> <레리 맥과이어> 쿠바 구딩 주니어 | <쇼뱅크 탈출> 윌리엄 새들러  
샤론 릴 데이빗 라쉬 베르나르도 포처 | 피터 쿠센스 감독 [CBS시네마의 첫 번째 수입 작품]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 'Amazing Grace'의 주인공인  
<존 뉴턴> 목사의 감동실화!

11월 19일 CGV 독점 개봉

NAVER 프리덤